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69호

「2019 농식품수출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개최

 「수출농산물 농약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개최

Ⅲ 한중 파프리카 수출 검역 협력 MOU 체결

 \mathbb{N} '19년산 제주 감귤 태국 첫 수출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69호 2019. 12. 27(금)

'19.11.30까지 농수산식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86.8억\$* 부류별 가공 수산 신선 7.0% 0.6% 3.7% 1.234백만불 5.175백만불 2.269만불 **나** 인삼류, 김치, 닭고기 라면, 커피조제품, 쌀가공식품 다 김, 굴, 삼치 💶 파프리카, 유자차, 사과 궐련, 음료, 맥주 ➡ 참치, 녑치, 고등어 국 가 별 * 쌀 무상원조 실적(`18(20.0백만불), `19(2.0)) 제외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 김(15%), 음료(5%) 미국 **♥** 비스킷(△12%), 배(△2%) 1,062백만불(8.6%) ▲ 김(37%), 라면(27%) 중국 ► 온라인몰 연계 포도 판촉(~12.27) **'ᅷ** 유자차(△16%), 맥주(△3%) 1,475백만불(7.5%) ▲ 김(10%), 궐련(2%) 일본 **'ᅷ** 참치(△18%), 파프리카(△2%) 1,984백만불(2.5%) ► 베트남 대형마트 연계 신선농산물 판촉(~`20.1.21) _ ♠ 닭고기(69%), 궐련(6%) ASEAN ►베트남 온라인몰 연계 인삼류 판촉(~`20.1.5) **☆** 참치(△14%), 음료(△3%) 1,638백만불(1,6%) ▲ 포도(29%), 굴(11%) 홍콩 **'** 궐련(△6%), 인삼류(△3%) 375백만불(△3.2%) 🔥 새송이버섯(7%), 음료(3%) EU ☆ 참치(△6%), 막걸리(△2%) 507백만불(△6.3%)





☆ 🬞 漂:15%이상 / 🌞:5~15% / 🌑:0~5% / 🚾:0~△5% / 🐙:△5~△15% / 🛸 : △15%이하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69호 2019. 12. 27(금)

품목별 이슈

* 실적 : '19. 1. 1 ~ 11.30



" 인삼류 "

◇ 한국산 인삼에 대한 프리미엄 인식으로 선물용 수요 꾸준

184,753천불(9.0%)

► 주요 수출국 : 중국(62,284천불, 33.6%↑), 일본(29,993, 1.7), 홍콩(25,259, △3.3), 미국(19,064, △16.3), 베트남(18,065, 34.7)

" 라면 "

◇ 매운 맛 계열 라면의 인기 지속에 따른 유통 매장 입점 확대



► 주요 수출국 : 중국(113,586천불, 26.9%↑), 미국(48,761, 7.0), 일본(30,811, 6.4) 인도네시아(21,861, 27.3), 대만(18,629, 0.6), 호주(18,061, 1.5)

428,104천불(11.1%)



" 국 7

◇ 국내 굴 생산 증가로 인한 가격 경쟁력 강화 및 대형 유통 매장 입점으로 현지 소비 활발

72,875천불(10.1%) ► 주요 수출국 : 일본(30,799천불, 9.1%↑), 미국(19,794, 17.7), 홍콩(7,762, 10.8)

☆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aT 수출기획부061-931-0816,7)







농진청 이슈



「2019 농식품수출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개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우수 수출 농업 기술 전시와 농식품 수출 경영체의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2019 농식품 수출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를 12월 5일에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수출 농업을 이끌어가는 식량, 채소, 화훼 등 농식품 수출 경영체와 이를 지원하고 있는 유관기관, 각 도농업기술원, 시군센터 관계관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농식품수출기술지원본부 성과보고는 기초기술, 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 기술실용화 수출 관련 우수성과와 현장적용 우수사례, 기술활용 수출 실적 등을 전시회를 통해 선보였다. 또한 '수출농업 경영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경영체 수출상품개발, 시장확대 등에 대한 성공 사례를 발표하였고 참여한 7개 경영체 대상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시상도 하였다.

최근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은 세계시장에서 우리 농산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으뜸 농업기술이 곧 농식품 수출 성장의 열쇠이므로 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 연계를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농식품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수출농산물 농약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개최

농촌진흥청은 11월 26일 대전에서 '수출 농산물 농약안전관리 및 수입국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 설정을 위한 국제 심포 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 대만의 전문가들과 수출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효율적인 시험을 수행하여 공동 협력의 발판을 갖추고자 마련했다.

심포지엄 1일차에는 '국내 농산물 수출지원 동향 및 각 나라별 IT 설정방법', 2일차에는 '농촌진흥청의 IT 설정 연구 추진을 위한 국가별 잔류 시험 방법'을 주제로 사례발표와 학술토론회를 하였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수출 통관 중 부적합한 농산물이나 농약이 대상국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잔류시험과 농가 대상 수출 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보급과 상담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진행하여왔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높은 농약 안전 관리 수준을 알려 대만, 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IT 신규 설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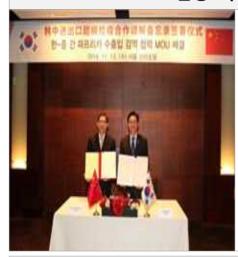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69호 2019, 12, 27(금)

식물검역 이슈



한중 파프리카 수출 검역 협력 MOU 체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9.11.13.(수) 파프리카 수출 검역 요건에 대해 중국 해관 총서 부서장 방한을 계기로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서울에서 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향후 중국수출을 위해서는 등록된 수출 선과장 등에 대한 중국 측의 최종 승인과 한중검역관 합동 수출 검역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내년 상반기 내에는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 이번 협상 타결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국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 것과 일본 수출시장에 편중되어있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계기로 파프리카 수출시장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9년산 제주 감귤 태국 첫 수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9.11.26.(화) 제주 감협 표선 유통센터에서 태국으로 처음 수출되는 제주산 감귤(1,160kg)에대해 수출 검역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태국으로감귤을 수출하기 위해 '18년에 제정된 '한국산 감귤의 태국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수출 선과장과 과수원을 등록·관리하였고, 11월 초 태국검역관 2명을 초청하여 수출시스템을합동 점검한 결과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태국수출로 인해 감귤 수출시장을 아세안국가들로 확대하기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국산 참다래 대만 수출 길 열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9.12.4일 자로 국산 참다래를 대만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검역요건인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 검역요령'을 제정·발효하였다고 밝혔다. '19.9월 국산 참다래 대만 수출요건에 대해 합의하였고, 그동안 양국은 수출·입 관련 규정 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대만도 '19.12.3일자로 수입규정을 공고 하였다. 다만, 국산 참다래를 대만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까지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선과장과 과수원 등록 신청이 되어야 하고 병해충 예찰·방제, 대만 검역관 현지 조사 실시 등의 절차로 인해 내년산 참다래부터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



